SAEGAERO EDUCATION

# Read at Home More Experiences : At the Hospital

**Storybook?**
– 스토리 북 교재 내용에 대한 번역입니다. 수업 준비 시, 미리 참고하세요.

**Kipper Gets Nits (키퍼에게 서캐가 생겼어요!)**

**Tips for Talking and Reading Together**
– 책 표지의 그림들과 제목을 보고 이야기 하세요.
– 자녀의 기대와 감정을 이끌어 내 이야기 하세요.
–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.
– 숨어 있는 스티커들을 찾아보세요.

**스토리를 읽는 동안**
–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보고 토론해보세요.
– 28쪽과 29쪽에 나와 있는 그림들과 단어를 보세요.
– 그림들 안에서 재미있는 물건들 찾기를 해보세요.
– 책의 마지막 쪽에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즐겨보세요.

재미있게 즐겨보세요!

**(본문 내용)**
P4: 칩은 몸풀기를 하고 있었어요. 그는 그 다음 날에 있는 축구 경기를 위한 훈련을 받는 중이었어요.

P5: “조심해!” 크레그가 말했어요. “네 신발 끈이 풀렸어.” 그러나 너무 늦었어요.

P6: 칩은 벤치 위로 넘어졌어요. 그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어요. 아버지께서 뛰어 오셨어요.

P7: “다리가 너무 아파요.” 칩이 말했어요. “일어설 수가 없어요.” “내 생각에는 너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나을 것 같구나.” 아빠께서 말씀하셨어요.

P8: “불쌍한 칩” 아빠께서 말씀하셨어요. “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만나라고 해야겠구나.”

P9: 엄마는 휠체어와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“당신이 차를 주차하면 나는 절차를 밟고 있을게요. 대기실에서 만나요.”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어요.

P10: 간호사가 칩과 엄마를 좁은 방으로 데려갔어요. “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줘요.” 간호사가 말했어요. 칩은 그에게 그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말하고 그의 다리를 보여주었어요.

P11: “이 표를 보세요. 얼마나 고통이 큰지 그림을 가리켜보세요.” 간호사가 말했어요. “나는 고통을 줄이는 약을 줄 수 있어요.”

P12: “뼈가 부러졌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어요.” 간호사가 말했어요. “이 환자 이동 담당자가 휠체어를 태우고 갈 거에요.”

P13: “엑스레이 기계는 다리 안의 뼈의 사진을 찍는 거에요.” 방사선 촬영 기사가 말했어요. “아프지 않을 거에요.” “알아요.” 칩이 말했어요. “괜찮아요.”

P14: “네 다리의 이 뼈에 금이 갔단다.” 의사가 말했어요. “우리는 지금 너에게 깁스를 해 줄 거에요. 그러고 나서 골절부위 클리닉을 위해 월요일에 다시 오세요.”

P15: 엄마는 깁스하는 동안 칩의 다리를 붙잡아 주었어요. “ 촉감이 부드럽고 따듯할 거에요.” 간호사가 말했어요.

P16: “다리에 무리를 주지 마세요. 깁스한 부분을 젖게 하거나 어떤 것을 깁스 속으로 찔러 넣거나 하지 마세요.” 간호사가 말했어요. “계속 시리고 아프면 부모님께 말하세요.”

P17: 간호사는 칩에게 목발을 주었고 그에게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었어요. “어렵네요.” 칩이 말했어요. “정말 잘하고 있구나.” 아빠께서 말씀하셨어요.

P18: 그 다음 날, 칩과 크레그가 축구 경기를 봤어요. “내가 경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.” “그것은 정말 재미있어.”

P19: “나는 농구도 하는데 이것도 정말 재미있어.” 크레그가 말했어요. “다음 주에 내가 경기하는 거 보러 올래?” “응,” 칩이 말했어요.

P20: 월요일에 엄마는 칩을 데리고 병원에 골절부위 클리닉에 갔어요. “금이 간 뼈는 약 6주 안에 더 나아질 거에요.” 의사가 말했어요.

P21: 칩은 걸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깁스를 얻었어요. “초록색으로 할 수 있나요? 그는 물었어요. “이것은 내 축구팀의 색깔과 같아요.”

P22: 칩은 비프과 키퍼에게 그의 새로운 깁스를 보여주었어요. “깁스 위에 그려도 돼? 키퍼가 물었어요. “안돼,” 칩이 말했어요.

P23: “조심해!” 비프가 말했어요. “플로피에 걸려 넘어져 팔도 부러지지 말고.”

P24: 그 다음 날 아빠는 칩을 데리고 크레그가 농구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.

P25: “와우” 칩이 말했어요. “이건 정말 재미있구나. 나도 농구 경기하고 싶어.” “네 다리 상태가 좋아지면 가르쳐 줄게.” 크레그가 말했어요. “이제 축구 하러 가자.”

P26: “너 정말 이거 잘한다.” 칩이 말했어요. “정말 연습 많이 했거든.” 크레그가 말했어요.

**Talk about the story (이야기에 관해서)**
– 칩은 어떻게 다리를 다쳤나요?
– 방사선 촬영 기사가 왜 엑스레이를 찍었나요?
– 칩이 축구 경기를 보고 있을 때 그의 기분은 어땠었나요?
– 어떤 다른 이유로 아이들이 종종 병원을 방문하나요?

**If you go to hospital with a broken leg you… (만약 부러진 다리로 병원에 간다면 당신은…)**
See a nurse (간호사 보기)
Have an X–ray (엑스레이 찍기)
Have a plaster cast put on your leg (다리에 깁스하기)
Are given crutches (목발 받기)
Go back to the fracture clinic (골절부위 클리닉 가기)
Have a new, light cast put on your leg (다리에 새롭고 가벼운 깁스하기)

**What do you think happens if you break your arm?**
**(만약 당신의 팔이 부러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)**

**Spot the pair (짝을 찾아라.)**
Find the two pictures of Chip that are exactly the same.
(완벽히 똑같은 칩의 그림 2개를 찾아보세요.)